

교회소식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2.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통독 7주 차입니다. 영상을 참조하면서 인내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민수기 10-30장).
3. 화상으로 진행되는 공동체별 성경 인물 연구 일정입니다 (일본 - 디모데, 오후 8시).

공동체	성경인물	공동체	성경인물
일본	디모데 (딤후 1장)	통가	빌립 (행 8장)

4.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3일 주일부터 St Luke's 교회(130 Remuera Rd)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교회 학교도 예배 시간 동일).
5. 모이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동체별로 가정이나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6.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일(27일)에 새로 옮겨갈 교회 예배 시간에 미리 방문합니다(예배 시간 9시 30분).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M a r c h

교회사역일지
 3월 6일(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3월 8일(화) 인도자 성경공부(Zoom)
 3월 27일(주일) 성찬 주일

기도순서

3월 27일 (주일) 손조훈 집사
 3월 30일 (수) 가정 예배
 4월 3일 (주일) 장경희 집사
 4월 6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예배 -
 목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4권 12호 2022.03.20

주일예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히브리서 13:15-16 ----- 인도자

*찬송 ----- 31장 -----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 292장 ----- 다함께

대표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 요한복음 1:6-8 ----- 인도자

찬양대 찬양 ----- 큰 죄에 빠진 나를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 빛을 증언하는 자 ----- 이태한 목사

찬송 ----- 84장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 411장 (1,3절) -----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푸른 하늘에 해가 나와서 눈이 쌓여 있고 쌀쌀하지만 상쾌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 3월은 나우르즈(Nauryz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고 이때를 새해로 여김)가 시작됩니다.

학원: 개인 수업 학생들 몇 명과 그룹 한 반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중 하나는 가장 큰 도시 AL에 사는 터키 민족 학생인데 다른 학생 어머니가 추천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룹은 각자 레벨이 다르지만 아이들이 착하고 개인 수업에 비해 더 다이내믹해서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교회 자매 Nz은 직장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시간을 쪼개서 영어를 배우는데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N 목사님이 지난주 S 도시로 잠시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타 도시 선배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교회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이곳에 있고 목사님만 3달 동안 S 도시에서 그곳 목사님과 교회 도움을 받으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회가 이 시간 동안 잘 모이고 견고하게 서길 기도합니다.

친구 Gz과 다시 만나다: Gz의 돈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후 한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나다가 Gz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과 설명을 했고, Gz은 제게 서운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제게 기도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해서 놀라웠습니다.

이 달에 묵상하는 말씀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입니다(시 18:29). 적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대단한 움직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힘차게 더 담대하시길 간구 드립니다.

나하르 드림

기도제목

1.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잘 모이고,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2. Gz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도록, 그녀가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알아가도록

목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청소년부실)

찬	양	-
성	경	마가복음 1:35-39
경	봉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
설	교	이태한 목사
기	도	-

2022년 3월 1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예수 안의 생명> 요한복음 1:4-5

사람의 생명이 귀한 이유는 유한하며 사람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귀한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 넣어주신 생기로 생명이된 생명이 있고(창 2:7) 나눠 줄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4).

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 주는 영이 되셨기에(고전 15:45)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4).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요 5:21).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요일 5:12).

2) 빛으로 나타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4).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에 비취 주신 계시(고후 4:6), 또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바른 생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취지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을 삼지 않는다면(시 119:105) 말씀의 빛이 아닌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3) 어두움을 이기는 빛: 빛이 어두움에 비치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5)에서 ‘깨닫지 못했다’는 이기지 못했다는 뜻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창 1:2) 천지창조와 연결됩니다. 그 흑암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창 1:3).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온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어두움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혼돈을 정돈하시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삶의 결핍과 혼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풍성하고 부요하게 됩니다. 태양 앞에 촛불이 필요 없듯 예수님 앞에 다른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저앉아 가만히 있지 말고 모든 방해물 물리치고 빛으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요10:10) 하기 위함입니다. 부요함은 재산에 있지 않고 생명은 건강에 있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함과 불신앙을 빛에 비추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옷을 입을 때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 빛 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요3:19). 그러나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삶 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2.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섬김을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세상, 창궐하는 오미크론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도록.